

주간기도정보

2024. 6. 1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변화하는 선교계, 교회의 역할은?…“이주민 선교 동참하자”

엔코위 후속모임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발표



국내 이주민 300만 명 시대가 눈앞이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여 명)의 약 5%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이주민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증가 추세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시범 배치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교계도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와 역파송 전략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엔코위·NCOWE)가 개최된 지 1년이 흐른 지금,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한국교회 맞춤형 선교 전략,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선교계는 지난해 6월 열린 제8차 엔코위를 통해 세계 선교의 지형이 ‘비서구권 중심 전방향적 선교’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양한 액션 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모임은 엔코위 이후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에는 목회자 4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을 위한 논의에 임했다.

예정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명예 선교사인 김영휘 목사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선교의 모체는 교회”라며 “교회들이 건강해야 선교도 잘 된다. 한국교회는 선교적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유된 로드맵의 핵심은 ‘이주민 선교’였다. ‘가는 선교’가 아닌 ‘오는 선교’로써 지역교회가 앞장서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자는 것이다.

문창선 위디선교회 대표는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육박했고 과거에는 이주민 선교가 특수분야로 분류됐으나 이제 모든 교회가 앞마당 선교를 펼쳐야 한다”며 “교회 내 이주민을 위한 부서를 개설하는 것을 넘어 특정 지역에 목적형 이주민교회를 설립하거나, 이주민교회와 협력하는 등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현택 은평성결교회 목사는 인도 출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오 목사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예배를 시작으로 이주민 자립을 돕고 외국인들이 직접 예배를 이끌도록 한 사역 등을 함께 나눴다.

평신도 중심의 이주민 선교단체 비솔라이트 이범재 사무총장은 “이주민 선교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 해외 이민자가 급감했듯이 현재 국내 이주민들도 곧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주민 선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익숙함을 타파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회, 선교위원회가 나서서 이주민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직접 동역하기 어려운 경우, 이주민교회와 사역단체를 후원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갈라디아서 3:8)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사도행전 11:20-21)

하나님,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어 이제는 어디서든 외국인을 볼 수 있는 시대 속에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시오. 나라와 인종, 언어뿐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마음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 땅에 함께 거하는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이주민이 믿고 주께 돌아와 그들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며 선교완성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북한, 24시간 경계 태세 돌입…전역이 푸틴 맞을 준비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푸틴에 요청할지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평양을 비롯한 주요 군사 지역에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북한 전역에 군사적·행정적 지시를 내리는 등 푸틴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북수의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도 평양과 국경 지역에 13일 저녁 7시를 기해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했다. 내부 군(軍) 소식통은 “어제(13일)부터 (남북) 접경지역에 주둔한 전연(전방)군단에 경계 태세 강화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24시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순안공항에서 평양시 중심구역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봉쇄된 상태고, 평양 외곽에서 중심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연못동 3대혁명전시관 앞 도로까지 일반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 외에도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사법 명령이 내려졌다는 전언이다. 우선 북한 당국은 13일 이후 다른 지역 주민들이 수도 평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평양시를 출입할 때 필요한 승인번호 발급도 중단했다고 한다. 승인된 공무 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는 평양시를 출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인민반에 등록된 거주자 이외에 타지에서 유입된 인원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숙박검열을 수시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에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일시적으로 평양시 전역의 시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임시로 시장을 폐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평양시 안전부는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역전, 시장, 골목 등에서 꽃제비(부랑자), 거동 수상자 등을 발견하면 강제 연행해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13일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영용함’과 ‘8·24영용함’, 미사일 잠수 시험 바지선이 옮겨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 5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했다며, 북한이 김군옥영용함의 해상 시험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의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세척은 모두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에 핵심으로,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열린 김군옥영용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설계하여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핵심기술을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통일부는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협력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잠언 14:11-12,14)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5-16)

하나님,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경비주관을 선포하며 온 힘을 다하여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쌓으려는 계획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의지할 것이 없어 핵무기와 공산국가와의 연대를 의지하려는 시도가 끊어지게 하시며 김정은 정권의 굽은 마음을 꾸짖으사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게 하소서. 점점 국제사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편을 떠나본 적 없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육이 상하고 심령이 병든 이 땅을 복음으로 고쳐주시고 교회의 힘 있는 간구를 통해 모든 영혼이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도록 역사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주께로 돌이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리라”

다가오는 여름성경학교...교단·선교단체 준비 만반

다음세대 눈높이 맞춘 이색 공과 프로그램도 ‘눈길’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국교회는 여름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다양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마련,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갈수록 다음세대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은 ‘최고의 코치 예수님’(벧전 2:9)을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다. 부제는 ‘내가 바로 교회예요!’다. 예정합동의 여름성경학교는 올여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에 콘셉트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고

의 코치’ 예수 그리스도와 ‘대표 선수’ 베드로의 일대일 밀착 코치 등 베드로의 삶을 통해 예수께서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을 경험토록 내용을 구성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는 ‘기도할래요’(살전 5:16-18)를 주제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기감의 콘셉트는 ‘운동장’이다. 체육의 기본기를 운동장에서 다지듯 이번 성경학교가 기도의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다. 김용환 기감 교육국 어린이교육부 부장은 “다음세대가 기도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CEF)는 2024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빌3:14)으로 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CEF 대표 박홍선 목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고만 지향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세대가 현실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유’를 주제로 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예장통합 교육자원부 김권수 목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치유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치유의 사명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승동 목사)도 ‘예수님 따라 힐러 프렌즈’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진행한다. 부제는 ‘하나님께 치유 받는 성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여름성경학교 공과교재 ‘힐링! S.O.S’(행 3:6)를 소속 교회에 무료로 배포한다.

다음세대의 흥미를 끌만한 이색 공과 프로그램들도 눈에 띈다. 예장합동은 성경학교 공과 교재에 ‘J스타그램’이라는 코너를 도입했다. 디지털 세계에 친숙한 다음세대 특성에 맞춰 SNS, QR코드 등을 활용했다. 기도를 강조한 기감 여름성경학교는 ‘햄버거 기도문’, ‘감튀(감자튀김의 준말) 기도문’, ‘피자 기도문’ 등 음식 모양으로 입체 기도문을 제작했다.

하나바이블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세 약화, 이단 확산 등 위기 속에 있지만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다음세대가 바른 믿음 안에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출처 : 데일리굿뉴스 종합).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예레미야애가 5:32)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누가복음 1:17)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은혜의 단비로 다음세대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앞으로 진행될 성경학교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최고만을 지향하는 세상에서 경쟁하며 고통하는 다음세대가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헛된 것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행복을 얻게 하소서. 준비하는 교회와 교사들의 수고와 간구를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전심으로 준비하되 오직 은혜만을 바라며 학생들을 섬길 때에 그 안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세례요한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 되어 주의 백성을 일으키는 부흥을 주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